

성공하는 반수

Intro

삼반수를 끝내고 나서 읽은 책이지만 나의 2013년이 너무도 많이 겹쳐지는 소설이 하나 있다. ‘스물아홉 생일, 일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소설이 그것이다. 주인공 야마리는 곧 서른을 앞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외모는 뚱뚱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친구는 떠나가고, 집안 사정 역시 여의치 않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29살 생일에 자살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왕 죽을 거, 1년 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에서 가진 모든 돈을 걸고 제대로 한판 승부를 벌인 후 멋지게 죽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목표 하나로 1년을 죽기 살기로 살아낸다. 라스베이거스에 갈 돈과 카지노에 걸 돈을 벌기위해 밤낮으로 ‘미친듯이’ 일을 하고, 그날 입을 드레스를 위해 ‘미친듯이’ 다이어트를 하며 카지노 게임을 공부한다. 그리고 1년 후 기어이 그 화려한 목표를 달성해낸다. 물론 죽지는 않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후에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어쩜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물론 나는 그때 29살은 아니고 21살이었고, 뚱뚱하긴 커녕 재수를 끝냈었을 땐 물골이 말이 아니게 말랐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나에겐 살만 없는 게 아니고 정말이지 재수를 끝내고 내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21살치고는 또래보다 사연이 많은 나였다. 믿었던 마지막 하나까지 없어졌을 때, 나는 용기가 생겼다. 대학 레벨을 높이고 싶다는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무언가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었다. 단지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용기였다. 말하자면 더 잃을게 없어보였다. 그래서 반수를 시작했고, 과정으로 말하자면 저 소설의 야마리만큼 ‘미친듯이’ 살았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도전을 통해 내 길을 찾았으며 교대 입시에 성공했다. 내가 수험생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반수 방법이 아니다. 그런 방법적인 것을 요약하자면 종이 서너장이면 충분하다. 내가 진짜로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일년 후 죽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 당장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불태웠던 그 과정들이다. 또 반수를 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했다는’ 나의 스토리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핵심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